

결핵성 폐질환의 폐절제술후 폐기능및 동맥혈가스분석에 대한 임상적 고찰

서울위생병원 흉부외과
채성수·권오우·구자홍·김창희

서울위생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8년 5월부터 1992년 4월말까지 시행한 전폐적출술 119례, 폐엽절제술 218례의 총 337례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의 폐기능 검사및 동맥혈가스의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연령분포는 최저 18세에서 최고 63세로 평균 35세였으며, 남녀비는 1.6:1로 남자가 많았다. 결핵성 폐질환이외의 수술 원인으로는 폐기낭, 폐농양등이 있었고, 절제부위로는 전폐절제술의 경우 좌측이 88례로 우측의 31례보다 많았고 폐엽절제술은 우상엽이 70례, 좌하엽 50례, 좌상엽 48례, 우하엽 24례, 우중엽 15례, 기타 11례의 빈도를 보였다.

저자들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전과 술후 1,2주에 폐기능 검사와 동맥혈가스 분석을 시행하였고, 수술 3-4개월후 추적 가능한 30%의 환자에서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폐절제술의 경우 수술직후 폐조직의 손실 및 손상, 수술창상에 의한 동통으로 인한 흉곽운동의 제한으로 폐기능의 감소를 초래하나, 사강및 동정맥 단락감소로 동맥혈가스 분석 결과 개선된 소견을 보였다.
2. 추적 가능한 환자의 술후 3-4개월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 술전의 약 90%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특히 전폐절제술시에는 술전에 비해 폐활량이 20%, 최대호흡량은 15%정도 증가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흉곽내 사강절제로 인해 잔여 폐조직이 팽창됨으로서 폐기능이 호전된 결과로 사료된다.
3. 이상의 결과로 폐허탈을 야기하는 폐질환, 특히 폐결핵 환자의 폐절제술에 대한 수술적응의 확대를 고려 해야 될것이다.